

“아우들 힘내라 힘! 오늘은 형들이 뚫는다”

■ 베어벡호 아시안컵 대비 우즈벡과 평가전

베어벡호가 중앙아시아의 복병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007 아시안컵축구 우승을 향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8위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안컵 출정을 하루 앞두고 최종 평가전을 펼친다.

한국(FIFA 랭킹 51위)은 역대 전적에서 우즈베키스탄에 3승1무1패로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1994년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0-1로 패한 이후 13년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전을 앞둔 베어벡호의 화두는 밀집수비를 깨고 다득점을 노리기 위한 전술변화 실현.

그동안 '4-2-3-1 전술'을 기본으로 팀을 이끌어온 베어벡 감독은 지난달 29일 이라크 평가전에서 3-0 대승을 거둔 이후 '4-4-2

전술'을 함께 가다듬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베어벡 감독은 광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2차 전지훈련부터 최전방 투톱에 좌우 측면 미드필더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키는 변형 '4-4-2 전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베어벡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훈련을 마친 뒤 "대표팀에는 재능이 좋은 3명의 선수가 있다. 스타트는 이들 중 한 명이 뚫을 것"이라고 강조해 우즈베키스탄전에 '4-2-3-1 전술'을 기본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투톱은 좋은 공격 옵션"이라고 덧붙여 상황에 따라 '4-4-2 전술'로 변화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표팀은 이날 오전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공격수들이 골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결정력 훈련에 주력했다.



베어벡 감독은 일단 부상에서 회복된 조재진(시미즈)과 이동국(미들즈브러) 중에서 한 명을 전방 중앙에 투입하고 좌우 측면에 발이 빠르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최상국(성남)과 이천수(울산)를 먼저 출격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라크와 평가전에 선 김경우(나고야)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오창민(울산), 이호(제니트), 김상식(성남) 중에서 2명을 골라 '더블 볼란테'를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진은 공세시 페널티지역까지 올라와 흘러나오는 '세컨드 볼'을 솜으로 연결하는 적극성을 주문받았다.

포백(4-back)은 이라크전에 빠진 김동진(제니트)-송종국(수원)이 좌우 윙백으로 나서고 중앙 수비에는 '영건 듀오' 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가 포진할 공산이 크다.

골키퍼는 이라크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이운재(수원)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안컵 출정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오는 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평가전에 앞서 4일 낮 서울 삼삼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뒤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축구



신영록 심영성

삼바축구도 깜짝 놀란 영록·영성 '공격 듀오'

20세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의 'S 라인 공격 듀오' 신영록(20·수원)-심영성(20·제주)이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다.

신영록과 심영성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나란히 세계 최강 브라질의 골문을 열었다.

0-3으로 끌려가던 후반 38분 심영성이 먼저 헤딩골을 꽂아넣었고 6분 뒤 신영록이 추가골을 뽑아 3만5천 관중을 흥분시켰다.

비록 결과는 2-3 패배였지만 둘은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펼쳤다.

후반 각각 추격골 1골씩

신영록 '부상 투혼' 빛나

안팎했다면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날 폴란드와 3차전까지 심각하게 가라앉을 뻔 했지만 이들의 골로 분위기를 바꿨다.

특히 신영록의 골은 부상 투혼을 뽐내고 나왔다. 후반 21분 하태균(수원) 대신 들어간 신영록은 34분 수비수 다비드 마리뉴와 공중볼을 다투다 팔꿈치에 코를 맞았다.

피가 쏟아져 코를 숨으로 막고 남은 시간을 뛰어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종료 직전 결정적인 찬스에서 날린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만 향하지 않았다면 극적인 무승부를 연출할 뻔했다. 경기 직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간 신영록은 이날 특점으로 1977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다골 타이(3골)를 만들었다. 3골은 1983년 멕시코대회 신인호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전 동점골에 이어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신영록은 2005년 네덜란드대회 스위스전에서도 한 골을 넣었다.



4일 오전(한국시간)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D조 2차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브라질에 2-3으로 패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주저앉아 있다. /연합뉴스

■ 한국 16강 가는 길은?

폴란드전 반드시 이겨야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이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한국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강호 브라질에 맞서 투혼을 발휘하고도 아쉽게 2-3으로 패했다.

1차전에서 미국에 1-1로 비겼던 한국은 1무1패가 돼 조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참가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어난 1997년 말레이시아 대회부터 이런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일단 한국이 폴란드를 꺾으면 1승1무1패(승점 4)가 돼 폴란드(1승2패·승점 3)를 제치고 최소 조 3위는 확보한다.

같은 시간 미국이 브라질을 꺾어 준다면 미국은 2승1무, 브라질은 1승2패가 돼 한국이 조 2위가 될 수도 있다.

최소 조 3위로 '실날 희망'

한국은 폴란드를 잡는다고 해도 조 1위에 오를 수 없다. 조 2위 또는 3위로 16강 진출을 노려야 한다.

이번 대회는 24개국이 참가해 4개 팀씩 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그러다 보니 16강 티켓은 각 조 1, 2위 12개 팀 외에 3위 중 성적 좋은 네 팀에도 돌아간다.

참가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어난 1997년 말레이시아 대회부터 이런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일단 한국이 폴란드를 꺾으면 1승1무1패(승점 4)가 돼 폴란드(1승2패·승점 3)를 제치고 최소 조 3위는 확보한다.

같은 시간 미국이 브라질을 꺾어 준다면 미국은 2승1무, 브라질은 1승2패가 돼 한국이 조 2위가 될 수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브라질에 2-3 패

아쉽지만 잘 싸웠다

리를 태극호가 삼바군단의 벽 앞에 분투를 삼켰다.

그러나 0-3에서 막판 두 골을 따라붙는 놀라운 독심을 발휘해 16강 진출의 희망은 잃지 않았다.

조용현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축구대표팀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2-3으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개막전에서 폴란드에 일격을 당한 브라질은 아말랄과 알렉산드레 파투(2골)가 밀레이 골을 퍼부어 3-0까지 앞섰다.

하지만 한국은 대패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후반 막판 심영성, 신영록이 연속 추격골을 터트려 극적인 무승부까지 노렸다.

골키퍼도 튀어나와 총력전을 펼치지만 시간이 아슬했다.

1일 미국전 무승부에 이어 1무1패로 조 4위가 된 한국은 7일 폴란드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조 2위 또는 3위로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

브라질은 1승1패로 폴란드를 6-1로 대파한 미국(1승1무)에 이어 조 2위.

미국은 프레디 아두가 대회 첫 헤트릭을 기록했다.

한국은 브라질과 U-20 대표 역대 전적 1승8패로 밀렸고 U-20 월드컵에선 6전 전패를 당했다.

한편 E조에서는 북한이 전공익의 극적인 동점골로 강호 체코와 2-2로 비겼다. 북한과 체코는 나란히 2무.

북한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맞붙는다.

아르헨티나는 세르지오 아게로(2골) 등이 골쪽을 쏘아 올려 약체 파나마를 6-0으로 대파, 조 1위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